

금융그룹감독 세미나

祝 辭

2020. 1. 29.(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I.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금융그룹감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융연구원 손상호 원장님과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융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늘 애써주시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김상조 정책실장님,

그리고 귀한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금융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II. 그간의 성과 및 평가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러 금융업을 함께 영위하는데서 오는 그룹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 금융그룹감독 대상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금융지주는 제외(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모범규준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그룹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2년전 처음 도입된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관계 전문가분들과 금융그룹 임직원분들이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Ⅲ. 금융그룹 위험관리의 필요성

세계적인 온라인기업 아마존이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보여주는
“리뷰” 기능을 처음 도입했을 때,
무리한 시도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당장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적극 관리해나간다면
해당 금융그룹은 물론
우리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위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금융그룹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습니다.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밖에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금융그룹감독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우리나라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진일보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